

국회 '슈퍼워크' 시작... 여야 대충돌 예고

22~25일 대법관 후보 3명·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野, 25일 본회의서 방송4법·노란봉투법·전국민 지원금 등 처리 방침

7월 넷째 주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면서 여야의 대결도 불을 뿜을 전망이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한 데 이어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야당의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법' 등 강령 처리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대치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24~25일 이진숙 방통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가장 날 선 공방이 벌어질 '전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리는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책임자라고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흑색선전을 앞세워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며 공영방송 재장악을 시도하고, 정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방해해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반복 개최되고 있다는 점도 비판한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이례적으로 이를 일종의 청문회를 강행하며 이 후보를 향한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서고 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임명될 수 있는 만큼,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언론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자진 낙마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오는 25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최대 쟁점 법안인 '방송 4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은 물론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전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이다.

앞서 민주당은 방송 4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되, 범국민협의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는 행정부의 인사 권한인 데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진이 임명돼왔다는 점을 들어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민주당은 다시 '25일 본회의 처리' 입장으로 돌아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여당이 의장 중재안을 견어한 이상 우리 역시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의장을 설득해 25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과 각종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장은 당초 중재안을 정부와 여야에 각각 제안한 만큼, 23일까지 정부의 입장을 지켜본 뒤 향후 본회의의 날짜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민생 위기 특별조치법 역시 정부 재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여권의 기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尹탄핵청원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지난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전진숙 '광주의료원 예타 면제' 법안 대표발의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 국회의원은 21일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은 최근 열린 보건복지부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시설 신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중합병원 수준의 광주의료원이 신설된다면 광주 진료권에서 전국 평균 대비 1.3배 높은 중증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추진하는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의료원을 건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신속하게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법률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예타 통과가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울산과 광주의 지방의료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고, 서울시 및 인천의 제2의료원 사업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는 소환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보안 청사로 소환해 비공개로 조사한 것에 대해 "소환 쇼"라고 비난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약속 대련의 막이 올랐다"며 "유명 배우도 여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수 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김 여사 혼자만 유유히 비켜 갔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2심 판결이 코앞인데 수년간 소환 조사를 받지 않더니, 법사위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두고 마음대로 소환 쇼를 연출한 것"이라고 비

판했다. 그는 "김 여사는 대한민국 법치 체계 그 위에 존재하나, 모든 국가 기관이 김 여사 해결사로 전락했다"며 "권익위가 앉아서 김 여사에 면죄부를 주더니 경찰은 뇌물 수수를 스톱킹 범죄로 둔갑시켰다"며 "이제 검찰이 혐의 털어주기에 나선 것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소환 쇼' '검찰과의 약속 대련'이라며 비판한 것을 두고는 "매우 유감"이라며 "정정오를 물고 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임

조국 전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로 조국혁신당 대표로 재선출됐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실시된 찬반 투표에서 99.9%의 찬성률로 신임 대표에 당선됐다.

조 전 대표는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혁신당을 창당하고 추대 방식으로 대표직에 올랐다. 연임 도전을 위해 이날 초 대표직을 사퇴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 "윤석열 정권의 극악무도함을 낱알이 밝혀내 검찰특제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꼭 보여주겠다"면서 "특히 2026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서삼석, 지속가능 '갯벌 보전 관리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21일 매년 감소하는 갯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보전·관리를 총총히 하도록 하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2021년 신안 등 5개 지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추진한 입법 조치다.

유네스코로부터 우수한 생명의 다양성을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17조8000억원 수준이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년마다 갯벌 면적을 조사하고 있다.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간직한 갯벌의 중요성에 비해 전체 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갯벌 면적은

2443km²로 5년 전인 2018년 2482km²에 비해 여의도 면적 13배에 달하는 38km²가 사라진 것이다. 이는 20년 전인 2003년 2550km²보다는 106km² 줄어든 여의도 면적 36배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남 (17.09km²), 경남 (7.04km²)은 증가했지만, 인천 (▲39.67km²), 경기 (▲20.27km²), 충남 (▲3.19km²), 전북 (▲2.08km²) 순으로 감소했다. 울산·경북·강원·제주 갯벌은 신규 조사를 추진해 3.48km²로 확대됐다.

서삼석 의원은 "자연생태계 복원과 탄소중립 실천으로 갯벌의 국가경쟁력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뭇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뭇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채권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해산후 청산절차가 진행중이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4년 9월 15일까지 아래 주소지로 채권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채권명세서를 제출할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대저로 55, 306동 1602호 (운암동, 벽산블루밍메가씨티아파트)
2024년 7월 22일
주식회사 영진병재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53, 11동 233호 (매월동)
청산인 강미선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4년 07월 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1,420,000,000원을 금 97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발행주식총수 142,000주 중 보통주식 45,000주를 본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1주당 10,000원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제일일부터 2024년 08월 22일까지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4년 7월 22일
에스엘기구산업 주식회사
전라남도 목포시 송림로36번길 27, 2층 (용당동)
대표이사 장옥남

분할합병공고

(제외자 미회 및 유한책임공고)
주식회사 금광에너지(이하 "금광")와 주식회사 태극건설(이하 "태극")은 각각 2024년 07월 19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합병 제53조제2 내지 제53조제11 규정에 따라 "금광"의 그 재산(영업의 일부인 전기공사사업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금광"이 합병하고 같은 손익)으로 하였으며 "금광"의 분할된 전기공사사업의 재산 부채 등 "금광"의 전기공사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금"이 승계하며 합병 제53조제9항 제2항의 규정 준수를 위한 재산분할을 승인하고 인준하고 "금"은 합병을 승인하여 이의의 제출을 하지 않는 채권자는 이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제정일일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없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하고 회합한다.
2024년 7월 22일
"금" 주식회사 금광에너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36(송정동)
대표이사 황형석
"태극" 주식회사 태극건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인면 황림길 12, 1층
대표이사 김종원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컬빌딩
840㎡ 바닥628㎡ 대용건물
역곡, 의료기관 4개연주

월 3천4백만원
매가78억

은행 36억5천.보9억4천포함

인수가 **32억**

010-3646-8700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